

농업기술 명인들의 성공 비결은?

농진청이 내놓은 '이달의 신간'

'공공데이터 활용 농촌공간 분석 가이드라인'

'나의 농업유산탐험기 활용 A to Z' 등 총 8권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지난 19일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성공 사례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농촌공간 분석 가이드라인', '나의 농업유산탐험기 활용 A to Z', '농산물 가공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 이달의 신간 8권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이라는 책자는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56명의 농업 성공담을 모은 책이다. 이 책자는 농업기술명인이 영농에 임한 과정과 영농비결을 보유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며, 기술적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농진청은 2009년부터 해마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각 1명씩 농업기술명인을 선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 책에는 명인들이 들려주는 성공적인 영농비결도 실려 있어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평했다. 책자는 3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b.rda.go.kr) 누리집에서 PDF 파일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농촌공간 분석 가이드라인'은 농촌협약과 관련한 기초생활서비스분야별 공공데이터와 공간분석을 위한 자료(데이터) 변환 방법, 분석사례, 공간분석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책자는 수량 범위 안에서 농촌공간데이터의 종류와 활용에 관심이 있는 업무 담당자,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b.rda.go.kr)에서 PDF로도 볼 수 있다.

농업유산을 주제로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담은 사례집 '나의 농업유산탐험기 활용 A to Z'는 환경,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농업유산과 융합해 현장중심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창의적으로 운영한 3개 중학교(완도 청산중, 구례 산동중, 부안 하서중)의 실전 사례를 소개한다. 책자는 수량 범위 안에서 농업유

산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b.rda.go.kr)에서 PDF로도 볼 수 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된 「농산물 가공사업장 안전보건관리」라는 책에는 ▲농산물 가공사업장 개요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농산물 가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가 실려 있다.

농진청은 이밖에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탈출, 쉽고 치유', '농촌 치유관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은 이렇게', '유기농경지 해충관리를 위한 생태보전 식생관리', '자가 제조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와 활용' 등의 책지도 발간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확산 맞서 무형문화재 보전 '앞장'

신협,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코로나19 예방물품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은 지난 18일 서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와 문화재청간 체결된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신협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보유자, 전수조교) 보호 및 전수교육관 위생 안전 관리 위해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성주 신협사회공헌재단 부문장과 박종근 국가무형문화재기술훈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교육터전 마련을 다짐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안전인식 발열감지장치, 마스크,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등으로 전수교육관 주요 70개소에 비치돼 전수조교(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 428명 및 방문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공된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전수자 간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전승되는 만큼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보전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신협의 코로나19 예방물품 후원은 무형문화재 보호와 함께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협의 다양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문화재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도 최선을 다해 지원·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문화재청과 지난해 11월 '문화유산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선 4대공 전주 전통 한지 후원 및 무형문화재 감염병 예방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협 문화재 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양파 민간수입량 1만2170t 전년보다 6배 ↑

설 이후 가락동 반입량 감소 인해... 검역 신청물량도 늘어

최근 설 명절 수요 증가와 설 이후 가락동 반입량 감소로 국내 양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지난 19일 발표한 양파 수입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민간 수입량은 1만2,170톤으로 전년 동기 2,037톤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양파 수입은 올해 초부터 주당 평균 2,000톤 수준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

으며, 주로 중국에 국한되었던 수입국 가도 일본,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또한, 수입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신청물량(검역관 배정 현황자료)도 2월 1일부터 17일까지 8,574톤으로, 1월 신청량(5,272톤)보다 63%가 늘었다. 이에 따라 2월까지의 양파 수입물량은 지난해 동기 3천톤의 6.7배 수준인 2만톤 내외로 전망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금 전달

더이름·마이코린 등 4곳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지난 18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에서 전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비사회적경제기업 포함) 4개사에 대해 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5일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소재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총 15개의 기업이 참여한 공모에서 공단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신규사업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4개 기업은 중증장애아동에게 인택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이름',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돕는 '마이코린', 농산물 도매시장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돕는 '더착한농산물',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으로 해외 판로 확대를 돕는 '더원푸드' 등이다. /김윤상 기자

비대면 신규 외화예금 최고 90%까지 환율 우대

전북은행, 오늘부터 'JB는 달라\$ 이벤트 Season I'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비대면 외화예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비대면채널을 통한 거래 시 최고 90%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은행, JB는 달라\$ 이벤트 Season I'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국민달러화(USD)의 경우 90% 환율 우대가 적용되며, 유로화(EUR), 일본엔화(JPY)는 80%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

또한 외화보통예금은 입금 또는 지급 거래 시 환율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며, 외화정기예금은 초입금 거래 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외화자유적립예금은 입금 거래 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미국달러 약세에 따라 환차익을 기대하는 개인고객들과 외환거래가 잦은 수출입업체 등 환율에 민감한 법인 고객들을 위하여 환율우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외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co.kr), 뉴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농기계 활용 농업 전문인력 육성 '맞춤'

전북농협·전주비전대

산학협력 MOU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8일 전주비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농기계 활용을 통한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에 적극 협조하는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기관은 스마트영농에 필요한 방제드론 조종자 과정과 농업기계실무자 양성과정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방제드론과 농업기계실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농협과 전주비전대는 산학 공동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는 한편, 방제드론 조종자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 장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 농업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트 영농을 선도할 현장 중심 농업기계 기술인력을 양성해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두호 농진청 신임 차장 임명

농촌진흥청이 지난 19일 22일자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김두호 신임 차장(사진)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 이의 고위공무원 인사로 김상남 국립농업과학원장, 윤종철 국립식량과학원장, 조남준 연구정책국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